

전남도, 첨단전략산업 20조 투자 유치

이차전지·우주항공·해상풍력 등 1만6000여명 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도가 민선 8기 이후 2년만에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수준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차전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 과감한 인센티브, 맞춤형 입지 제공 등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으로 1만6000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지역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내외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294개를 유치해 총 20조 5400억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모두 1만675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의 입지규제 완화는 정부, 지자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해파 사례로 꼽힌다. 이는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4조4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와 산업유지 부

족 문제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냈다.

'30조원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목표 전략과 방향도 주요했다. 이차전지 양극재·리튬 등 핵심소재, 데이터센터, 수소 등 첨단·신성장산업에 11조 8100억원의 투자가 몰려 총 투자 유치 규모의 57.5%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차별화된 투자 환경과 장점, 지원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투자유치활동(IR) 및 핵심규제 해소 등도 빈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온 힘을 쏟고, 이를 통해 특구지역 핵심 앵커기업의 지역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량 보유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에너지 분산화 확대 정책과 연계해 해상풍력, 수소, 데이터센터 등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을 핵심 타겟으로 해 투자유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그동안 주력산업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했던 철강·화학·조선산업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수소환원제철, 가능성 화학소재, LNG·암모니아 선박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구조가

재편되는 것과 연계해 기업의 신성장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 첨단기업 투자는 늘고 있으나 산업단지 분양률이 98%로 입주기업에 제공할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주 에너지·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 광양 세풍·순천 해동·무안 케이(K)-푸드 일반산업단 등 입주수요와 개발타당성이 높은 지역에 첨단·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2024년부터 전남지역 투자유치 보조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입지 보조금은 분양가의 20%, 시설 보조금은 20억원 초과 투자금의 10%로 각각 50억원씩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신성장·첨단기업은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을 각각 10%p씩 추가해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남만의 비교우위 산업 공급망 및 기반시설, 전략적 세일즈 투자유치 활동, 차별화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 공영민 고흥군수(오른쪽)와 '고흥 녹동신항, 제주연계 물류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제주도-고흥군, 녹동신항 물류센터 신설 공동 협력

안정적 물동량 공급·국비 확보 등 제주-내륙 간 해상물류 거점 조성

고흥 녹동신항을 제주도과 내륙 간 물류 처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고흥군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녹동신항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 안정적인 물동량 공급 및 배분을 위해 물류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1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고흥군과 함께 고흥 녹동신항에 제주도와 내륙 간 물류처리 거점을 확보해 제주도 생산품을 보

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 공영민 고흥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관리연안항인 고흥 녹동신항에 물류센터 신설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과 물동량 확보,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제주도, 고흥군과 함께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확정한다. 전남·제주·고흥 지방 협력 사업으로 항만기본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과 2025년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녹동신항을 제주-육지 간 물류

유통 거점이자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대표 지원항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 해상풍력·그린수소와 같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재미·활력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

광주관광공사 출범...2026년 도시이용인구 3천만 목표 제시

광주관광공사는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관광 마이스(MICE) 업계와 대학,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주 FC와 가야타이거즈 선수들, 방송인 전현무·박나래·이장우·양세형·장도연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관광공사는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마이스 통합 플랫폼이라는 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꿀잼 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경영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영산강 100리 길 Y 프로젝트,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등과 함께 2026년 광주 도시 이용인구 3000만 시대 실현

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조직 개편, 사업 구조 조정, 노사 화합 문화 구축 등을 통해 경영 자립에 나서고, 사업 다양화와 지역 관광 생태계 확장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단순히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두 조직이 하나 된 것을 넘어 무한대의 가능성을 펼칠 더 큰 조직으로 탄생했다"며 "문화·예술·스포츠·맛과 멋과 의의 도시 광주 스토리를 기반으로 꿀잼 광주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광주 관광 발전을 선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광주를 실현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20일 상인 워크숍

광주시는 20일 라페스타 웨딩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상인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상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통시장 상인,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참여해 2024년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지원정책,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책 등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또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7명의 유공상인들에게 광주광역시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참여 상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

이다. 박성현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상인들이 고민과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힘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10개 시장, 32억원) ▲주차환경 개선사업(3개 시장, 24억원) ▲특성화사업(6개 시장, 19억원) ▲화재공제 지원사업(3억원) ▲상권르네상스 사업(3개 권역, 총사업비 260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우리나라 대표 명절 무형문화재 지정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이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조상께 예를 올렸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유산이 전승돼 왔다.

설과 대보름을 비롯해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명절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내년 5월부터 국가무형유산으로 통용)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일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삼국시대부터 세시 의례로 전승돼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설 차례, 세배, 떡국을 먹는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한식은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로,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조상의 선영을 찾아 제사를 지내

는 등 추모와 의례적 성격을 지녔다.

단오(음력 5월 5일)는 여름을 맞는 대표적인 날이다.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 다채로운 세시풍속이 이어져 왔다.

설날과 함께 대표 명절인 추석(음력 8월 15일)은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명절이다. 가을 추수 무렵과 가까워 오곡백과 등 다양한 곡식과 과일들로 조상의 음덕을 기렸다.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에는 팔죽을 끓여 제사를 지내고 공동체 화합을 도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통 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5개 명절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건 처음"이라며 "개인회개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 가족과 지역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skypark@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면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신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업 오피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재순(330915-2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동문대로10번길 18 (봉황동)
· 피상속인 망 이재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 단1185호로 신청하여 2023년 12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 등을 하지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19일
· 상속인 : 최숙희(560603-2XXXXXX)
· 유언시 기증구 안동로71번길 64, 103동 901호(청덕동, 청덕마을광도아이드빌)
· 신고기간 : 2023. 12. 19. - 2024. 2. 2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최숙희의 주소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3년 12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일치로 주식회사 아이에스홀딩스를 유한회사 아이에스홀딩스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아이에스홀딩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279번길 2-1, 2층(농성동)
공동대표이사 김경일, 양형식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